

제 5 편 재 건 기
백리언 목사 시대 (1962~1966)



백리언 목사

교회의 쇄신과 개혁에 최선 역대목사 중 최단 4년 시무



3남4녀 모두 모인 가족사진(도미 기념) - 1958

1962년 5월 20일 백리언 목사가 취임, 1년만인 이듬해 6월 30일 위임식을 거행했다. 백리언 목사는 1915년 2월 9일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 일본 도쿄신학교와 봉천 동북신학교를 졸업했다. 1948년 봉천 서탑교회를 시작으로 1951-52년 마산 문창교회에서, 그리고 대광중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교목으로 각각 2년씩 있는 뒤 1956년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백 목사는 취임 직후부터 의욕적인 교회 개혁을 시도해 2부에배를 신설하는 한편 구역심방을



강화하고 권위적이나 진취적인 목회를 펼쳐 나갔다. 교회당에 인접한 선교부 대지를 불하받고 목사관 건축, 교회묘지 설치 등 임기 4년에 혁혁한 공적을 세웠다. 1966년 6월 연동교회를 떠나 미국 유니온신학대



백리언 목사 취임 · 송선영 장로 취임, 진영득 · 박명덕 장로 장립 기념

백리언 목사 취임 (겸 송선영 장로 취임, 진영득 · 박명덕 장로 장립) 기념 - 1963

학원 수학, 연세대학교 교목실장, LA 한인연합장로교회와 서울 중암교회 담임을 거쳐 1975년 LA에 해람교회를 설립했다. 시무중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오랫동안 병석에 있다가 1994년 7월 23일 별세했다. 정시옥 사모와의 사이에 백형설 장로 등 3남4녀를 두었다.



중암교회 시무 때 목사사택을 방문한 연동교인들 - 1972



어느 날의 간절한 기도 - 1965



김포공항에서 도미 환송(상: 청년들 · 하: 교인들) - 1966



영결식(상 : 연동교회 · 하 : 로스힐장례식장) - 1994



저서
(1962-1975)

청년면려회

춘추 두 차례 야외예배 매월 한 차례 헌신예배



입석 캠프장 하기수양회 - 1962

뒷줄: ○·이시중·○○·이수영·이병선·이정일·이해순·백형설·이은성·○○·고현·○·배영복·장문식
앞줄: ○·○○·연길자·김혜선·주복덕·전성천·전필순·백리언·정시옥·이상임·김마르다

1962년 8월 20-24일 청년면려회 회원 20명은 기차를 타고 경기도 입석 캠프장에서 수양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전필순 원로목사와 백리언 목사를 비롯해 외부에서 전성천 목사를 초빙했다. 4박 5일 동안 신의경 권사와 주복덕·김혜선 집사가 동참했으며 회비는 2백원과 쌀 두 되씩이었다.



서오능 야외예배와 김종상 장로(앞줄 다섯째) - 1963

1963년 5월 16일 청년면려회 회원 일동은 백리언 목사 사모와 김종상 장로를 모시고 서오능으로 야외예배를 갔다. 각자 지참한 도시락을 먹은 뒤 레크리에이션으로 친목을 다졌다. 청년회에 남자가 많던 때 비율은 4(남):1(여)이었다. 청년회는 동년에 김재준 목사(4월)·박대선 목사(6월)를 모시고 매월 빠짐없이 헌신예배를 드렸다.



입석 캠프장 하기수양회-1964

(둘째줄: 홍옥희·○○○·배영복·이은성·백리언·전성천·이시중·이해순·김진기·김마르다·이정운...)

1964년 8월 10-14일 청년면려회 회원 18명은 62년도와 같이 경기도 입석 캠프장에서 하기수양회를 개최했다. 강사는 역시 전필순 원로목사와 백리언 목사를 비롯해 전성천 목사였다. 이때도 권사 및 집사 세 분이 식사를 위해 수고했으며 회비는 350원과 쌀 두 되였다.

주일학교

장년부 · 청년부 · 고등부 · 중등부 · 유년부
유년부 소속 어린이만 3백여명을 넘던 시대



중 · 고등부 수업식을 마치고 - 1962



주일학교 교사 일동(앞줄 중앙: 송선영 장로) - 1965



유년부 주최 성탄 축하잔치 기념 - 1965



중 · 고등부 주최 성탄극을 마치고 - 1965



중 · 고등부 주최 성탄 축하예배 기념 - 1966
앞줄 : 박창범 · 이민우 · 주복덕 · 이상학 · 이도원 · 이은성 · 차규장 · 조규훈

이 시대 주일학교는 장년부 · 청년부 · 고등부 · 중등부 · 유년부 5개 부서였으며 유년부만을 일컬어 유년 주일학교라 했다. 1966년 5월 8일 실질적인 주일학교 부서의 통계에 의하면 고등부 47명, 중등부 82명, 유년부 345명이 출석했다. 여기 이 무렵의 주일학교 사진 가운데 엄선된 3장이 성탄절에 관한 것으로 그만큼 비중이 큰 연중 대표적 교회절기임을 읽을 수 있다. 1965년 12월 21일의 경우 중 · 고등부는 본당 1층에서 이도신 성도 지도의 성탄극 '어린 마음들'(마 19:14)을 공연했다.

성탄축하

성가대 : 음악예배 마친 뒤 새벽송 나서
청년회 : 자선 음악예배 열어 이웃 구제



성가대 주최 성탄축하 음악회를 마치고 - 1962

앞줄: 유덕희 · 이봉순 · 김한국 · 신경욱 · 진성희 · 김중상 · 백리언 · 사모 · ○ · 김명숙 · 방정현 · 김한성



청년회 주최 성탄축하 자선 음악예배를 마치고 - 1966

넷째줄: 이정기 · 이은성 · 이동필 · 김중문 · 조규훈 · ○ · 차규장 · 이황희 · 장상교
앞줄: 이봉자 · 임정순 · 홍옥희 · 김양숙 · 허재철 · 김중상 · 신경태 · 김영애 · 오정애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축하 음악예배를 갖는 것이 이무렵의 관례였다. 40여명으로 구성된 성가대(대장: 김한성 집사)는 신경욱 집사의 지휘와 김명숙 성도의 반주로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헨델의 메시아 등을 부른 뒤 기념 사진을 찍는다. 성가대원 중 우낙신 · 이해순 · 박인석 · 백형설 장로가 보인다. 그리고 본당에 피워 놓은 난로에 둘러 앉아 선물교환을 한 뒤 밤 12시가 넘으면 조별로 새벽송에 나선다.(아래 사진: 왼쪽 나기환 장로)



1966년 12월 18일 오후 7시 청년회는 성탄축하 자선 음악예배를 열었다. 고현 성도의 사회로 합창 · 성구남송 · 찬송 · 성경봉독 · 찬미의 제단에 이어 허재철 목사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선포했다. 신경태 성도 지휘와 김양숙 성도 반주로 진행된 제 2부 음악순서는 「① 합창: 고등부성가대 ② 바이올린 독주: 이성자 ③ 이중창: 진성애 · 박수전 ④ 여전도회 합창 ⑤ 바이올린 독주: 이해숙 ⑥ 사중창: 엔젤스 보이즈 ⑦ 바리톤 독창: 신경욱 ⑧ 남성합창: 1부성가대 ⑨ 소프라노 독창: 최경순 ⑩ 합창: 성가대」였다.

장로 장립(1)

상 : 송선영 · 진영득 · 박명덕 장로 1963
 하 : 오기억 · 신영묵 장로 1964
 하 : 진피득 · 이상학 장로 1966



① 진영득 장로 ② 박명덕 장로 ③ 송선영 장로



① 오기억 장로 ② 신영묵 장로



① 진피득 장로 ② 이상학 장로

사경회와 장로 장립(2)

상: 전영복 목사 초빙
하: 이삼열 장로 1966



부흥사경회 기념(백리언 목사와 송선영 장로 사이 : 전영복 목사) - 1963

196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영복 목사를 강사로 부흥사경회를 개최했다. 오전 5시 새벽기도회, 오전 10시 30분 성서연구회, 오후 7시 부흥집회로 매일 저녁 8백여명이 모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전영복 목사는 일본인으로 일본명은 오다나라치, 1929년 내한해 축호 및 노방전도를 전개한 뒤 1937년 평양 송실전문학교 부흥회에서 신사참배 반대강연을 해 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39년 일본으로 돌아가 후쿠오카교회를 거쳐 1948년 교토교회에 정착 재일교포 선교를 위해 여생을 보냈다.



① 이삼열 장로

교회창립 70주년

아담한 2층 38평 목사관 봉헌 신앙운동의 70인 어부회 결성



건평 38평 적벽돌 2층의 목사관 - 1964

1964년 12월 2일 오후 2시 교회창립 70주년 기념식 및 공군 기지교회 (제10전투비행단: 수원)와 자매 결연식을 거행하고 목사관을 봉헌했다. 동년 5월 1일부터 건축에 착수, 현금 115만 원을 들여 3개월만에 완공했다. 직영공사로 해 박명덕 장로(신일건설 대표)가 직접 시공한 목사관은 1층이 살림집, 2층이 응접실·서재로서 위치는 애린당(한옥) 자리. 지금 본당 현관에서 남쪽으로 15미터 지점(연지동135-65)의 새로 생긴 도로 한복판이었다. 백리언 목사에게 이어 김형태 목사가 입주한 뒤 1975년 12월 기독교회관에 매도했다. 한편 교회창립 70주년의 해에 신앙운동의 하나로 70인 어부회를 결성했다.



교회창립 기념식을 마치고 수상자 및 공군 기지교회 장병과 기념촬영 - 1964

여전도회 바자회

신성한 교회당 피해 비원에서 개최
바자회 수익금으로 농촌교회 지원



↑ 주복덕 권사 회장 때 - 1965

↓ 함유순 집사 회장 때 - 1966



연동교회 사상 처음으로 바자회를 개최했다. 특정한 사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춘·추 두 차례에 걸쳐 신성한 교회당에서 할 수 없어 가까운 창덕궁(비원 선은정 근방)에서 열었다. 백색 장대 끝에 십자가를 달아 세우고 '연동교회 여전도회' 팻말 앞에 모여 우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구역별로 준비한 과일·밤·대추·곶감을 비롯해 떡·약과, 심지어 계란 삶은 것까지. 박종남 집사(1구역:효제동)의 경우 밤을 삶아서 열다섯개씩을 실에 꿰어 1백원을 받고 팔았다. 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이었고 수익금은 경기도 남양주군 월산교회, 양평군 지평교회와 광암교회에 보냈다.